



## 출발은 좋았는데... 호랑이, 괴물에 막혔다

12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시범 경기. 2회초 한화 선발 류현진이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 KIA, 한화와 시범경기 1회 선취점 내고도 1-9 강우콜드패 '양현종 배탈'에 장민기 선발 투입...제구 난조로 역전 당해

'괴물'을 만난 '호랑이 군단'이 대패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시범경기 4차전에서 1-9, 8회 강우콜드패를 당했다. KIA는 4177일 만에 한화 유니폼을 입고 대전 마운드에 오른 류현진을 선발로 마주했다. 그리고 1회 류현진을 상대로 선취점은 만들었지만 선발 장민기의 제구 난조 속에 역전패를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해 공식 경기에 첫선을 보인 류현진과의 맞대결, 톱타자 박찬호가 6구 승부 끝

에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이날 2회에 자리한 1루수 이우성이 8구 승부 끝에 우측 2루타를 날렸다. 이어 3번 김도영이 류현진의 초구 직구를 중견수 앞으로 보내면서 타점을 올렸다.

나성범과 소크라테스가 각각 2루수 플라이와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류현진을 상대로 기본 좋은 선취점을 올렸지만 길고 긴 1회말 수비가 전개됐다. 양현종이 배탈 증세를 보이면서 '특급 좌완'들의 맞대결이 무산됐

고, '예비역' 장민기가 선발로 마운드에 올랐다.

상무 전역 후 첫 시즌을 맞은 장민기에게 좋은 어필 무대가 마련됐지만 제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첫 타자 최인호를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한 장민기가 페라자도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안지홍을 좌익수플라이로 돌려세우면서 원아웃은 만들었지만 '홀런왕' 노시환과의 승부에서 우측 담장 넘어가는 3점포를 허용했다.

장민기가 채은성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하면서 투아웃은 채웠지만 이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문현빈에게 우측 2루타를 맞은 장민기가 김강민에게 볼넷을 내줬다. 이어 이도윤과 최재훈에게 연달아 몸에 맞는 볼을 허용하자 KIA 불펜이 가동됐다.

장민기가 물러나고 '루키 사이드업' 김민주가 투입됐다.

1-4로 뒤진 2사 만루상황에서 급히 출격한 김민주가 타자일순해 1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최인호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했다. 이어 페라자의 중전 적시타, 안지홍의 볼넷, 노시환의 우전 안타가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1-9로 접수가 벌어졌다.

1회부터 일방적인 흐름이 전개되면서 KIA의 추가 득점은 없었다.

2회 최형우가 류현진에게 첫 탈삼진을 내줬고, 김선빈은 3루 땅볼로 물러났다. 한준수의 타구가 류현진 발 맞은 뒤 내야안타가 됐지만, 최원준이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됐다.

3회는 삼자범퇴였다. 박찬호가 유격수 땅볼, 이우성이 헛스윙 삼진, 김도영이 2루 직선타로 물러

났다.

4회 선두타자로 나온 나성범이 1루수 포구 실책으로 2루까지 향했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공 3개를 지켜본 뒤 삼진으로 물러났고, 최형우는 1루 땅볼로 아웃됐다. 김선빈의 타구는 류현진 앞으로 향했다.

62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났고, 4이닝 3피안타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최고 구속 148km를 찍은 류현진은 안정된 제구로 사사구는 남기지 않았다.

NC에 이어 시범경기 두 번째 상대 한화에도 1승 1패를 주고받은 KIA는 13일 휴식일을 보낸 뒤 잠실로가 14·15일 두산과 2연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1위답다 2경기 연속 '베스트팀'...가브리엘·정호연·엄지성 '베스트11'

'1위' 광주FC가 K리그2 2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은행 K리그2 2024' 2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4-2 역전승을 거둔 광주가 베스트팀에 선정됐다.

광주는 지난 1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경기에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2006년생 신에 양민혁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분 타진 가브리엘의 동점골로 추격에 나섰다.

후반 16분 이견희의 역전골이 나온 뒤 후반 21분 강원 이상현에게 페널티킥골을 허용했지만 승리는 광주의 차지였다. 후반 28분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골대를 가르면서 리드를 가져왔고, 후반 종료 직전에는 엄지성이 얻은 페널티킥 상황에서 최경록이 키커로 나서 쐐기골을 장식했다.

전반전 위기를 넘고 대역전을 완성한 광주는

연승을 기록하면서 1라운드 서울전에 이어 다시 한번 베스트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 경기는 2라운드 베스트 경기가 됐다.

원발과 머리로 '멀티골'을 장식한 가브리엘과 중원을 잘 지킨 정호연이 1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베스트11의 영예를 안았다. 에이스 엄지성도 명단에 포함됐다. 엄지성은 후반 3분 가브리엘의 동점골에 관여했고, 후반 추가 시간 문전 경합 과정에서 페널티킥도 얻어냈다.

K리그2 2라운드 MVP는 울산 이도윤의 차지였다. 이도윤은 9일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2골 1도움의 활약을 하며 팀의 3-2 승리 주역이 됐다.

이도윤은 전반 16분 루빅손의 크로스를 원발 발리슛으로 연결해 첫 골을 만들었고, 9분 뒤 페널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장식했다. 전반 28분 장시영에게 넘긴 패스가 골로 연결되면서 이도윤은 도움까지 올렸다.

전남드래곤즈는 K리그2 2라운드 베스트팀이 됐다.

전남은 지난 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포와의 경기에서 최성진의 시즌 마수결이 골을 시작으로 김중민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4-0 대승을 거뒀다.

'1골 1도움'으로 시즌 첫승을 견인한 몬타노와 몬타노의 첫 골을 돕는 등 공격의 활로가 된 김진오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K리그2 2라운드 MVP는 부산아이파크 김찬에게 돌아갔다. 김찬은 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의 경기에서 프로 무대에서 처음 3골을 몰아넣으면서 올 시즌 K리그 첫 해트트릭 주인공이 됐다. 김찬의 활약을 앞세운 부산은 4-1 승리를 거뒀다.

5골이 나온 이 경기는 2라운드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도쿄 3관왕' 안산, 양궁 국가대표 탈락

### 3차 선발전 21위 그치며 파리행 불발...광주·전남 5명 도전 중

도쿄올림픽 3관왕 주인공 안산(광주은행)의 2024 파리 올림픽 진출이 무산됐다.

안산은 지난 1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1-3회전 총점 14.5점으로 21위에 그치며 국가대표로 발탁되지 못했다.

3차 선발전은 지난 9일 치러진 1회전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6회전까지 진행된다.

1-3회전까지의 배점으로 매겨진 순위에 따라 남녀 각 16명이 4회전에 진출했고, 6회전까지의 최종 성적에 따라 남녀 각 8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2023 국가대표 자격으로 3차 선발전에 출전한 안산은 1회전에서 8위를 기록하며 배점 8.5점을 받았지만 2회전에서 배점 5점, 3회전에서 1점을 더해 총 14.5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운(남구청)이 광주·전남 선수 중 유일하게 3차 선발전에 진출했지만 13.5점으로 22위를 기록하며 4회전에 나서지 못했다.

1-3회전에서 16위 안에 들어 국가대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전남 공사는 총 5명이다.

오예진(광주여대)은 1-3회전 총점 44.5점으로

4위에 올랐다. 1회전에서 4.5점, 2회전에서 24점, 3회전에서 16점을 받았다.

8위에 오른 이은경(순천시청)은 1회전에서 9점, 2회전 7점, 3회전 24점으로 총점 40점을 획득했다.

안산과 같은 광주은행 테니스양궁단 최미선과 김이안은 각각 11위(35.5점)와 15위(26.5점)에 올랐다.

남수현(순천시청)도 총점 35.5점으로 12위에 자리하며 1-3회전을 통과했다.

이번 3차 선발전에는 지난해 말 진행된 1, 2차 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남녀 각 20명 선수와 2023년도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남녀 각 4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남녀 각 8명의 국가대표는 3~4월 두 차례 최종 평가전을 치르며, 평가전에서 뽑힌 남녀 각 3명이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다.

/김진아 jinggi@kwangju.co.kr

## MLB 서울시리즈 개막전 선발 공개

### 다저스-샌디에이고 20~21일 고척

#### 1차전 글래스노우 vs 다루빗슈

#### 2차전 머스그로브 vs 요시노부

오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MLB) 2024시즌 정규리그 개막전인 서울시리즈 2연전의 선발 투수가 공개됐다.

MLB 사무국은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벌이는 서울시리즈 1차전 선발 투수로 타이틀 글래스노우(다저스)와 다루빗슈 유(샌디에이고), 2차전 선발 투수로 조 머스그로브(샌디에이고)와 아마모토 요시노부(다저스)를 각각 예고했다.

20일에는 샌디에이고, 21일에는 다저스의 홈 경기로 치러진다. 두 경기는 우리시간 오후 7시 5분에 개막한다.

두 팀 모두 예상했던 1선발 투수를 2차전으로 돌리고, 2선발을 1차전 선발로 기용한 모양새다.

지난 시즌 후 탬파베이 레이스를 떠나 다저스로 이적한 글래스노우는 트레이드 직후 다저스와 5년간 1억3650만달러에 계약을 연장했다.

올해 다저스 선발진을 이끌어 갈 핵심 자원이 글래스노우는 탬파베이 시절인 2021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로 개막전 선발의 중책을 맡았다.

우리나라의 맛있는 음식에 기대감을 보인 일본 출신 간판 투수 다루빗슈는 2017년(텍사스 레인저스), 2021-2022년(이상 샌디에이고)에 이어 네 번째로 개막전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다루빗슈가 일본프로야구 닛폰햄 파이터스에서 뛰던 2011년 이래 13년 만에 아시아 대륙에서 공을 던진다고 소개했다.



2차전 선발 투수는 벌써 빅리그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한 아마모토의 빅리그 데뷔전으로 관심을 끈다.

12년간 3억2500만달러라는 빅리그 역대 투구 최고 보장액을 받고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아마모토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3년 연속 투수 3관왕을 달성하고 일본의 사이영상 격인 사와무라상을 3년 내리받았다.

2022년 중반 샌디에이고와 5년간 약 1억달러 규모에 계약을 연장한 머스그로브는 다루빗슈, 마이클 킹과 더불어 올 시즌 팀의 선발 삼총사로 불린다.

샌디에이고는 서울시리즈를 마치고 미국 귀국 후 이어지는 시범경기 일정과 선발 투수들의 투구 간격을 고려해 2차전에 머스그로브와 킹을 잇달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MLB닷컴이 전했다. /연합뉴스